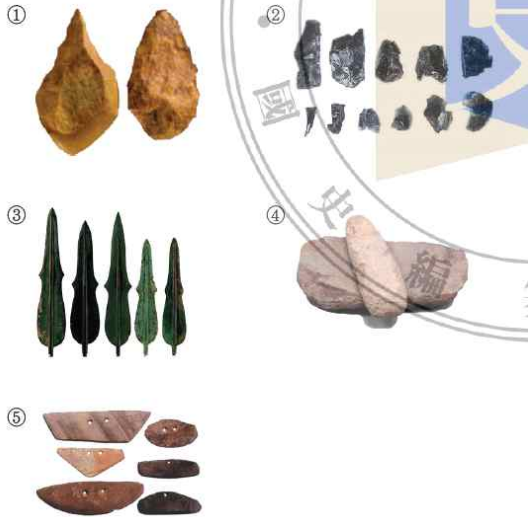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로 옳은 것은?

[2점]

이 유물은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예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를 선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물의 재료는 화산이 분화할 때 생성되는 유리질이 많은 암석으로, 깨뜨렸을 때 날이 날카롭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이 주요 산지로 알려져 있다.



정답: ②

* 편석기의 재료(흑요석)

한반도내에서는 전기나 중기, 즉 시기가 올라가는 유적에서는 규질암이나 석영암들로 만들어진 석기가 보편적인 반면 후기 구석기가 되면 밀도가 치밀하고 고른 석재를 선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흑요석이 장거리 운반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수성퇴적암류인 이암(泥岩)이나 혈암(頁岩) 등이 돌날(石刀, blade)석기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흑요석인데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흑요석은 화산이 활동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철원 북쪽의 화산암 지대에서 산출될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출토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백두산 일대만 흑요석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 ① 주먹도끼(연천 출토 양면 핵석기)
- ② 흑요석
- ③ 비파형 동검
- ④ 갈돌과 갈판
- ⑤ 반달돌칼

2.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8세에 왕위에 올라 영락대왕이라 하였다. …… 영락 10년(400)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고구려군이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 ①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② 고구려가 후연을 격파하였다.
- ③ 고구려가 수의 침략을 물리쳤다.
- ④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 ⑤ 백제가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었다.

정답: ②

* 광개토대왕(391~412)의 업적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 까지 영향력을 끼쳤다.

<정복 업적>

광개토대왕은 먼저 4만의 군사로 백제를 공격하여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였다. 이어 북

쪽의 거란을 원정하여 많은 촌락을 파괴하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것은 모용씨가 세운 후연을 공략하기에 앞서 그 배후의 거란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백제를 다시 공격하여 여러 성을 함락한 후, 한강을 건너 백제의 수도에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가 굴복하고 일시적이거나 고구려에 복속하기를 맹세하여 고구려는 한강 이북의 땅을 모두 점령하였다. 또, 5만의 군사를 신라에 보내어, 당시 신라를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400).

남쪽의 후환을 없앤 고구려는 서북쪽의 후연을 격파(402~406)하여 오랜 숙원이던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부여(410)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켰다. 이리하여 광개토대왕은 남북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 일생 동안 64개 성 1400여 촌락을 차지할 정도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업적은 만주 집안에 남아 있는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다

① 백제 근초고왕은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고구려군을 크게 물리쳤으며, 평양성 전투에서는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371).

③ 고구려 영양왕 때에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 군은 크게 무찔렀다(612)

④ 신라 진흥왕 때에 전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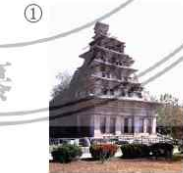
⑤ 신라는 눌지왕 때에 백제(비유왕)와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 나려 하였다(433)

3. (가)에 해당하는 문화 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 만들어진 탑은 목탑이었다.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7세기 백제에서는 목탑의 형식을 본 떠 화강암으로 탑을 만들었다. 한편 신라의 석탑은 전탑을 모방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가)은(는) 안산함을 작은 벽돌처럼 다듬어서 쌓아 올린 석탑으로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정답: ②

* 신라의 분황사 모전 석탑

분황사는 634년(선덕여왕 3)에 창건되었으며, 국보 제30호로 지정된 모전석탑이 유명하다.

분황사탑은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지금은 3 층까지만 남아 있다.

① **미륵사지 석탑**: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에 소재한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무왕의 재위기간 중인 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소위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③ **감은사지 3층 석탑**: 2층의 기단에 사각형으로 쌓아올린 3층 석탑으로, 동·서 두 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이다. 많은 석재를 이용한 수법은 백제의 석탑과 같으나, 그것이 목조탑파를 충실히 모방한 것인데 반해 이 석탑의 조형수법은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에 따른 것이다. 감은사는 682년(신문왕 2)에 창건되었으므로 이 탑의 건립도 그 무렵으로 추정되는 오래되고 거대한 석탑이다.

④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 말기에는 석탑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기단과 탑신에 부조로 불상을 새긴 것으로 이름이 나 있다.

⑤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강원도 평창(오대산) 소재. 통일 신라 때의 4각 3층 석탑을 넘어서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다각다층탑이 고려 전기에 유행하는데 그 전형을 보여 준다. 즉 당시 송나라의 선진문물이 수용되며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8각탑이 수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9층 탑신과 옥개석은 늘씬하면서도 안정된 느낌을 주며, 살짝 들린 옥개석의 모서리나 탑신의 감실, 팔각의 다양한 변화 등은 당시 불교문화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4. 다음 유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철(凸)자 모양 집터

- 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 ②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③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도가 있었다.
-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⑤ 특산물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생산하였다.

정답: ⑤

* 동예에 대하여

최근 강원도 동해시와 강릉시를 중심으로 철(凸)자 모양과 여(呂)자 모양의 집터가 계속 발굴되어 동예의 문화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

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동예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① 고구려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뒤꼍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가 있었다.

② 부여의 풍속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이것은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12월에 열렸다. 이 때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③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④ 삼한 중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5.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진성왕 3년(889) 나라 안의 모든 주·군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관리를 보내 동쪽이나 곳곳에서 도적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 애노 등이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 진성왕 6년(892) 궁예가 복원 도적 양길의 군대에 가세하였다. 양길은 기뻐하며 궁예를 잘 대우하여 일을 맡겼다. 마침내 군사를 나누어 주며 동쪽으로 보내 땅을 빼앗게 하였다.

- 「삼국사기」 -

<보 기>

- ㄱ. 국가의 도교 수용과 장려
- ㄴ. 중앙의 지방 통제력 약화
- ㄷ. 관료전 지급과 녹읍 폐지
- ㄹ.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농민이 도적화되는 신라 하대(말기)

8 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자연 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7)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보장왕 2년(643)에 왕에게 당으로부터의 도교 도입을 주청하였는데, 이는 유불도 3교를 국가경영의 이념으로 보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논리로서, 3교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한 치세를 강조한 이른바 삼교정족(三敎鼎足) 드러난다

㉡ 신라 중대 전제 군주인 신문왕(681~692)은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6.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372년 6월 전진에서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왕은 사신을 보내 답례하고 토산물을 조공하였다. 375년 2월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물게 하고,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교의 시작이다. - 「삼국사기」 -

- ① 동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았다.
- ②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③ 병부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다.
- ④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⑤ 16관등을 두고 관복 제도를 마련하였다.

정답: ②

* 불교를 처음 수용한 소수림왕

4세기 중.후반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에 서북쪽의 전연(342)과 남쪽의 백제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순도 파견)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이전의 다양한 신앙을 불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 고자 하였다. 이어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① 고구려 태조왕(53~146)은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동) 옥저(56)를 정복하고 동예를 복속시켰다.

③ 신라 법흥왕(514~540)은 상대등, 병부의 설치(531), 율령의 반포(520),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④ 압록강 하류에서 요동으로 나아가는 요지인 서안평(현 중국 단동)을 고구려 태조왕.차대왕(146), 동천왕(24) 등이 끊임없이 공격하다가 미천왕 때에 점령하였다(311)

⑤ 백제 고이왕(234~286)은 밖으로 마한의 중심 세력인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안으로는 새로운 관제(16관등)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과 중요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가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7. 가야 연맹에 속하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탐구 보고서

제목: 의 문화 유산을 찾아서

1. 김해 대성동 고분군  김해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분군으로, 구릉의 정상부에 왕과 왕족의 무덤이 있다.	2. 출토 유물  판갑옷과 청동술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은 당시의 문화 수준이 높았고 대외 교류가 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

- ①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 ② 귀족 합의제인 화백 제도를 운영하였다.
- ③ 5세기 이후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 ④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돌무지 덧널무덤이다.
- ⑤ 건국과 관련된 김수로왕 설화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정답: ⑤

* 김해 대성동 고분과 금관가야

• 대구모 덧널무덤군인 김해 대성동 구분군에서는 청동술, 이형 석제품, 바람개비 모양 동기, 원통 모양 동기, 거울 조각 펜던트) 등

의 철제 무기류, 갑옷류, 마구류들이 대거 출되었는데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의기적 유물로서 북방계 유목민족과 일본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유물로서 당시 활발한 가야의 대외관계를 보여준다.

•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 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 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 가야 연맹이라고 부른다. 연맹의 맹주인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하여 건국 되었는데(42, 관련 ‘구지봉’ 설화 삼국유사에 ‘가라국기’에 수록), 그 세력 범위는 낙동강 유역 일대에 걸쳤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

4 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4 세기 말~5 세기 초에는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몰락하여 가야의 중심 세력이 해체되고, 가야 지역은 낙동강 서쪽 연안으로 축소되었다.

①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 의해 병합되었다(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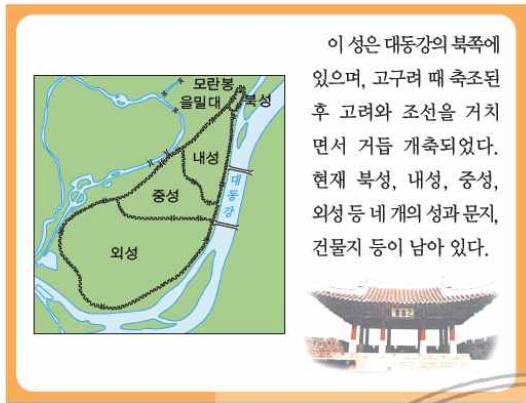
②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

③ 5세기 후반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 연맹을 이룩하였다

④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 초기(마립간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묘제이다.

8. 다음 유적이 있는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가 멸망한 뒤 안동도호부가 설치되었다.
- ② 고려 정종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천도를 추진하였다.
- ③ 임진왜란 때 조·명 연합군이 왜군과 격전을 벌였다.
- ④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 ⑤ 개항 이후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가 세워졌다.

정답: ⑤

* 평양성과 평양의 역사

• 평양성은 대동강이 S자형으로 흐르는 북쪽에 있으며, 고구려시대에 초축하였고 고려초에 다시 고쳐 쌓았으며, 조선시대에도 계속 수개축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모란봉, 을밀대, 만수대 등의 경관이 유명하며, 보통문은 현존하는 성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서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워졌으며, 현재의 건물은 여러 차례 보수해오다가 1473년(성종 4)에 새로 지은 것으로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평양은 옛 고조선과 고구려의 후기 수도이자 고려 때에는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시되어 개경과 유사한 중앙부서의 분소를 설치하는 제도인 분사제도를 실시하였다.

① 당은 668년 고구려가 멸망시킨 직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었으나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으로 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② 고려 정종은 왕식렴 등 서경 세력의 도움 속에서 즉위한 후 서경 천도를 추진하여, 개경 세력과 노역으로 인한 민중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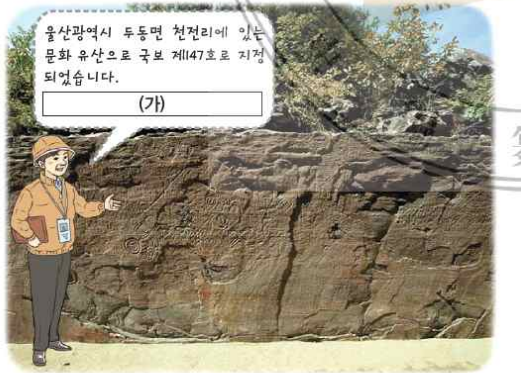
③ 인진왜란 때 명의 원군이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였으나(1593.1.6), 곧 벽제관에서 대패하였다(1593.1.25.)

④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이를 거절하자, 관리를 포로로 잡고 대포와 총을 발사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다 평양 군민들이 불태워 침몰시켰다(1866.7).

⑤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1883년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어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

9. (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백제의 귀족이 도교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 ② 신라에 충성을 바친 자에게 포상하였음을 알려줍니다.
- ③ 신라의 지방 통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을 보여줍니다.
- ④ 여러 가지 문양의 암각화와 신라 때의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 ⑤ 두 청년이 유학 공부를 3년 안에 마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 ④

* 울주 천전리 암각화

국보 147호로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져 온 암각화이다.

상부는 주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이루어진 조각이 있는데 사람 형상(무당)과 함께 사슴을 포함한 짐승, 뱀과 새, 물고기 등의 형상과 일부는 삼각형, 동심원의 기하학적 무늬가 있다.

신라 대의 서석에(536)는 법흥왕을 ‘聖法興大王’이라고 높여 부른 특징이 있다.

① **사택지적비(654)**: 백제 의자왕 때의 귀족 ‘사택지적’이 쓴 비문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도교 또는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단양 적성비(진흥왕, 550, 551년)**: 적성점령에 대한 포상과 그 지역에 대한 대민회유 무마책을 담고 있다.

③ **영일 냉수리비**: 503년(지증왕) 또는 443년(눌지왕), 영일 지방의 재산 분쟁을 판결해주는 내용

울진 봉평비(법흥왕 11년, 524): 법흥왕 자신이 울진에 순행하여 어떤 사건을 처리

* 이 비문들을 통해서 신라왕과 신라 6부의 관계가 나타나며, 국왕도 6부의 일원으로 회의에 참여하였음이 나타났다.

⑤ **임신 서기석(진평왕 611년)**: 문무왕 12년 설, 성덕왕 31년 설, 유교 경전 학습 맹세

10. 다음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1점]

- 명주의 장군 순식이 오랫동안 불복하였다. 순식이 드디어 받아들 수원을 보내어 귀순하니, '왕'이라는 성(姓)을 내려 주고 집과 토지도 내려 주었다.
- 신라 경순왕 김부가 항복하자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하였다.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십이 되어 부호장 이하 직(職)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 「고려사」 -

- ①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②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 ③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 ④ 지방을 5도 양계로 정비하였다.
- ⑤ 12목을 설치하고 외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①

* 사성정책과 사심관 제도를 실시한 고려 태조(918~943)

태봉(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취민유도).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을 관리로 등용하였다. 성(姓)을 하사(下賜)하고(사성 정책)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다. 또,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심관과 기인 제도를 활용하였다. 향촌에서는 토성(土姓)을 분정하고 직역을 고정시킴으로써 지배층을 확정하고 본관제(本貫制)에 입각한 향촌 사회 통제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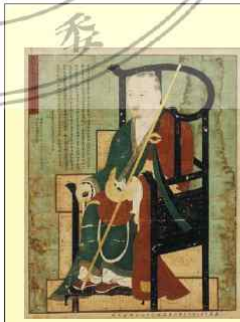
② 광종은 노비안검법(956)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③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1366)을 설치하고,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④, ⑤ 고려의 지방의 행정 조직은 성종 초(983) 12목에 처음 지방관을 파견한 이후로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1018, 현종 때에 완성).

11.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생몰 연대: 1055년~1101년
• 약력: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였다. 31세에 송으로 건너가 고승들과 불경을 토론하고 불경을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화엄종을 바탕으로 교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43세에 국청사를 완공하고 교관검수를 증시하는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였다.

- 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 ②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③ 심성 도야를 강조하여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④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재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 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정답: ①

고려 전기 교.선 통합의 주역 의천

11세기에 이미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1055~1101)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홍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 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의천은 고려는 물론이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② 지눌(1158~1210)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1163~1245)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법화신앙에 기반을 둔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③ 지눌의 제자인 혜심(1178~1234)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④ 몽골 침략으로 소실된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고종 때에는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개태사 주지인 수기(守其)의 총괄하에 16년(1236~1251) 만에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을 만들어냈다.

⑤ 통일신라기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12.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왕께 아뢰기를, “서경에 궁궐을 세워 거처를 옮기시면 금나라가 폐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의 나라가 다 신하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 또 칭제 건원할 것을 아뢰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 「고려사」 —

993	1019	1033	1104	1126	1232
(가)	(나)	(다)	(라)	(마)	
서희의 외교 담판	귀주 대첩	천리장성 축조	별무반 조직	이자겸의 난	강화 천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1135)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개경 귀족 세력은 유교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묘청은 황제를 칭하고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라 하였다.

그러나 개경파의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 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이견과 갈등 등이 얹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13.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려의 토지 제도는 대체로 당의 제도를 본받았다. 개간된 농지를 모아서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구분하여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府兵),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주었으며, 또 등급에 따라 땀값 얻을 땅을 지급하였다. 이를 (가) (이)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② 노동력의 징발 권리까지 주었다.
- ③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수신전, 휴양전의 명목으로 세습되었다.
- ⑤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고려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전시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국가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땀값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이 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지급량을 줄이고,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② 고대에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인 녹읍은 조세를 수취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④, ⑤ 조선의 과전법 하의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는데,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 조선의 과전법에서는 과전을 경기도에 한정하였으나(태종 때인 1417년 하삼도 분급이 일시 있었으나 1431년 다시 경기도로 환원하였다), 고려의 전시과는 그러하였다는 설과 그렇지 않고 전국에 걸쳐 있었다는 설이 있다

정답: ③

* 고려 전시과 제도

14. 밑줄 그은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해주 최씨 가문의 최충은 문헌공도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써서 해동공자로 불렸으며, 그의 가문은 십여 대에 걸쳐 여러 명의 재상을 배출하였다.
- 파평 윤씨 가문의 윤관은 삼한공신의 칭호를 받은 윤신달의 후손으로 관직이 문하시중까지 올랐으며, 아들 여러 명도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다.

—<보 기>—

- ㄱ. 공음전을 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 ㄴ. 유력 가문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었다.
- ㄷ. 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 ㄹ. 성리학을 수용하여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고려의 문벌 귀족

고려 전기에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에서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 귀족이라 부른다(경원 이씨-이자겸, 해주 최씨-최충, 경주 김씨-김부식, 안산 김씨-김은부, 파평 윤씨-윤관).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관직을 독점하고,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재상이 되어 정국을 주도해 나갔다. 이들은 관직에 따라 과전을 받고, 또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를 차지하여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력까지 거의 독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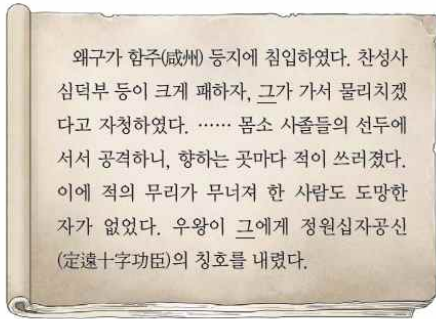
한편, 이들은 비슷한 부류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더욱 단단하게 장악하였다. 특히,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이자겸은 경원 이씨로서 예종의 장인이요, 인종의 외조부였다.).

㉠ 원 간섭기(1270~1351) 동안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왕의 측근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여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켰다

㉡ 공민왕(1351~1374)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의 정계 진출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의 향리 자제들로, 무신 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하여 중앙 관리로 진출하였다. 이들 중 일부가 측근 세력으로 성장하여 권문세족이 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공민왕 때의 개혁 정치에 힘입어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15. 밑줄 그은 '그'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삼별초의 항쟁 과정을 조사한다.
- ② 동북 9성의 축조 배경을 파악한다.
- ③ 신홍 무인 세력의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 ④ 정동행성 이문소의 폐지 이유를 살펴본다.
- ⑤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 경과를 찾아본다.

정답: ③

* 신홍 무인 세력 이성계(1335~1408)

• 보기의 사료는 1385년 후일 조선 태조가 되는 이성계가 함주(함흥) 지역에 침입해온 왜구들을 맞아 사기가 떨어진 군사들을 위해 유엽전을 쏘아 일곱 번 쏜 것이 일곱 군대를 맞히는 초인적 위용을 보여 주어 사기를 이끌어 내 크게 무찌른 일화에 관한 것이다.

•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홍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①, ⑤ 김방경(1212~1300)은 삼별초의 항쟁(1270~1273) 진압과, 두 차례(1274, 1281)의 일본 원정에 여몽연합군으로 참여하였다.

② 예종 때에 윤관은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1104)한 다음,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④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쳐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1356).

16.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광작이 나타났다.
- ② 담배와 인삼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③ 전국의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되었다.
- ④ 전세액이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되었다.
- ⑤ 강경, 원산 등이 전국적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정답: ④

* 조선 초기 세종 대의 경제 상황

• 세종 대에 편찬된 농사직설(1429)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의 실제 경험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 조선 시대의 조세는 과전법의 경우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 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 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1444)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貢法)을 마련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①②③⑤는 모두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다.

17.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은(는) 중요한 나랏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세선(稅船)이 서해의 안흥량에 이르면 물이 얕아서 돌에 부딪혀 부서지니, 이곳은 호서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포구에 창고를 설치하여 다른 배로 옮겨 실는다면 파선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보문헌비고」 -

- ① 신해통공으로 폐지되었다.
- ② 조선 시대부터 제도화되었다.
- ③ 세곡 운반이 주된 목적이었다.
- ④ 중개업과 숙박업을 포함하였다.
- ⑤ 경시서가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정답: ③

* 조운(漕運) 제도

고려, 조선 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세곡)를 수로를 이용하여 중앙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조운 제도라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각 군현에서 거둔 조세를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하였다가 전라도·충청도·황해도는 바닷길로,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조창으로 운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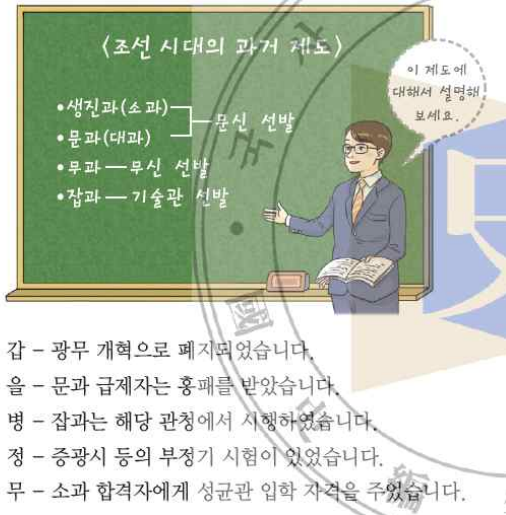
영류 지역: 중앙(경창)으로 세곡을 운송하지 않는 지역. 고려 시대에는 북계와 동계, 조선 시대에는 평안, 함경도와 제주도가 해당. 고려의 북계, 동계와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까워 세곡을 군량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서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썼다.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어 쌀이 많이 나지 않고, 바닷길도 험한 데다 운송거리까지 멀어 조운에서 제외되었다.

① 시전상인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특권인 금난전권은 정조 대에 신해통공(1791)으로 육의전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었다.

④ 조선 후기 포구를 거점으로 성장한 사상(私商)인 객주나 여각은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도 하였다

⑤ 조운 제도는 재정 담당 기관인 호조와 선혜청에서 관장하나 실제 운송에서 각 지방관아 및 병, 수영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18.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정답: ①

*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문과는, 예조 주관 하에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는 식년시의 경우에는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로 뽑고, 2차 시험인 복시에서 33 명을 선발한 다음,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에서 순위를 결정하였다. 문과(대과) 합격자는 홍패를 지급받았다.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과(생진과)에 합격하여 생원이나 진사가 되어야 했으나, 후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소과 합격자는 백패를 지급받고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병조와 훈련원 주관 하에 치뤄지는 무과도 문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치러지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28 명이였다(홍패 지급).

기술관을 뽑는 잡과도 예조와 해당관청에서 주관 하에 3년마다 치러지는데, 분야별로 정원이 있었다.

① 과거제는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19.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김효원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심의겸은 그가 윤원형의 문객이었다 하여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충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천거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 때 양쪽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였다. - 「연려실기술」 -

- ① 동인, 서인의 분당이 이루어졌다.
- ②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과가 실시되었다.
- ③ 외척 간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하였다.
- ④ 왕권 강화를 위하여 탕평책이 실시되었다.
- ⑤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답: ①

* 사림의 동.서 분당(1575)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두 세력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김효원을 비롯한 신진 관료가 중심이 되어 동인이 형성되었고, 심의겸 비롯한 기성관료가 중심이

되어 서인이 형성되었다.

붕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에서 비롯되었다(1575).

② 중종 반정(1506) 후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1519).

③ **을사사화**(1545):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윤(윤원형)과 대윤(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받았다.

④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졌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어, 숙종(1674~1720) 때에는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환국 초래), 영조(1724~1776)는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완론 탕평을, 정조(1776~1800)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준론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⑤ 세도정치기(1800~1863)에는 권력 구조에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20.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양역(良役)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1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인 대책을 잘 강구하라." - 「영조실록」 -

<보 기>

- ㄱ. 원납전을 내도록 하였다.
- ㄴ. 토산물 대신 쌀을 납부하게 하였다.
- ㄷ. 토지 1결당 2두의 결작미를 거두었다.
- ㄹ.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부과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군역의 개혁 군역법(1750)

조선 후기에 군역(양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들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농민들이 군역 부과에 저항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란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과 계속되는 군비 확장을 위해 원납전이란 이름으로 기부금을 받아내고, 당백전(상평통보의 100배 명목 가치->물가 상승 야기)을 발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 조선 후기의 공납의 개혁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공납의 전세화)

21. 다음 사상과 관련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조선 후기 산송의 발생 원인
- ㄴ. 고려 시대 연등회의 개최 목적
- ㄷ. 비보사탑(裨補寺塔) 건립의 이론적 근거
- ㄹ.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사상적 배경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풍수지리설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 지리적 학설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려 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와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길지설은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적 투쟁에 이용되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문종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진 정책의 퇴조와 함께 새로이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여 이 곳을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설과 도참 사상이 조선 초기 이래로 중요시되어 한양 천도에 반영되었으며, 양반 사대부의 묘지 선정에도 작용하여 산송(묘자리 송사)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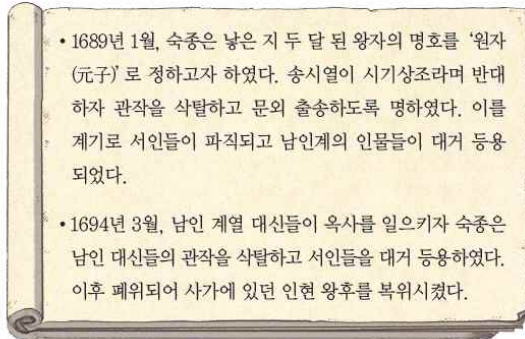
㉠ 고려 초기부터 불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태조는 불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교 이념과 전통 문화도 함께 존중하였다. 그는 개경에 여러 사원을 세웠고,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부처의 탄신을 기념하는 최대의 불교 행사, 1월 15일 또는 2월 15일, 현재는 음력 4월 8일)와 팔관회(도.불 혼합의 국가 행사, 11월 14~15일) 등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당부하여 불교에 대한 국가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 도선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호국적 사찰인 비보사탑을 지정했는데, 후일 고려 태조는 <훈요10조>에서 도선의 비보사탑설에 의해 지정된 곳 이외는 어디에도 사탑을 건립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 고려 성종 때에 최승로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리고,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사회 개혁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추구하였다

22. 다음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예송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었다.
- ② 외척의 정치 개입을 배제시켰다.
- ③ 사림과 훈구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 ④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⑤ 복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정답: ④

* 숙종(1674~1720)의 탕평책과 한국 정치

조선 후기에 봉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졌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한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악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 재집권

① 현종(1659~1674)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③ 성종(1469~1494)과 중종(1506~1544)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며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⑤ 효종(1649~1659)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등의 서인 세력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복벌을 준비하였다. 그 후, 숙종 초에도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휴 등 남인을 중심으로 복벌 움직임이 제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복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였다.

즉 복벌은 서인, 남인 등이 각자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르짖었다.

23. 밑줄 그은 '이들'의 본거지를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의 가게에서 장사의 기본을 배우고, 전국 주요 상업 지역에 진출하여 송방을 개설하였다. 또한 독특한 화폐 정리 방식인 사개치부법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조선 후기의 최대의 사상(私商) 송상(松商)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은 공인과 사상이었다. 처음에는 공인이 상업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사상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상의 활동은 주로 칠패, 송파 등 도성 주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성(송상), 평양(유상), 의주(만상), 동래(내상) 등 지방 도시에서도 활발하였다. 그들은 각 지방의 장시를 연결하면서 물품을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어 상권을 확장하였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송방)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경강 상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선박의 건조 등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활동 분야를 넓히기도 하였다.

- (가) 만상
(나) 유상
(다) 송상
(라) 시전상인·공인(관허상), 난전(사상)
(마) 내상

24. 다음과 관련된 사회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하였다.
- ②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해졌다.
- ③ 각처에서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 ④ 군역의 요역화로 대립(代立)이 성행하였다.
- ⑤ 수해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정답: ④

* 비기.도참 사상이 횡행한 19세기

19세기에 농민의 생활은 매우 어려워져 탐관오리의 탐학과 횡포는 날로 심해 갔고, 재난과 질병이 거듭 되었다.

1820년의 전국적인 수해와 이듬해 콜레라의 만연으로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피해는 그 뒤 수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굶주려 떠도는 백성이 거리를 메울 지경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 사이에는 비기, 도참설이 널리 퍼지고, 서양의 이양선까지 연해에 출몰하자,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져 갔다. 사회 불안이 점점 더해 감에 따라 각처에서는 도적이 크게 일어났다. 화적은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지방의 토호나 부상을 공격하였고, 수적은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무대로 조운선이나 상선을 약탈하였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 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전북 고창): 고려 시대에 만든 석가여래상. 19 세기에 명치 부위에 있는 감실에 비결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날 한양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

여기에 무격 신앙이나 미륵 신앙도 점차 확장되어 갔다. 현세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을 미륵 신앙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며, 심지어 살아 있는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서민을 현혹시켜 끌어모으는 무리도 나타났다.

④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져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와 다른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다. 이에 군포 징수제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2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선 전기의 중앙 군사 조직인 오위(五衛)는 16세기 말에 그 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 임진왜란 초기 왜군에게 참패하자 군사 조직의 재정비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왜란 중에 새로운 중앙 군사 조직으로 (가)이 설치되었다.

- ①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되었다.
- ②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이었다.
- ③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④ 품계를 받았으나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하였다.
- ⑤ 양인개병의 원칙에 따라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중앙 5군영 시초 훈련도감 (1594)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 초기의 중앙 군은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제가 일반화 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임진 왜란 초기에 어이없는 패전을 경험한 조정에서는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왜 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인 편제와 군사 훈련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4).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사수·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으로서,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장번급료병).

① 대한제국의 군대인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가 정미 7조약(1907.7)으로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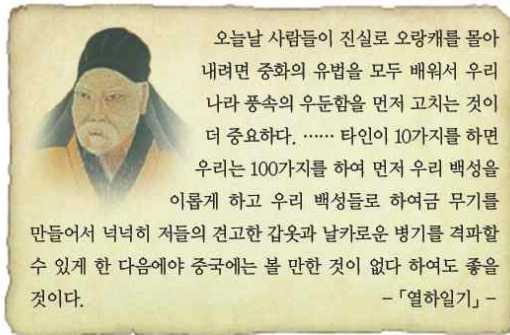
② 조선 후기 지방군 체제인 속오군은 위로 양반에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 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동원되었다.

⑤ 조선은 건국 초부터 군역 제도를 정비하고 군사 조직을 강화하였다.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였다(양인개병).

이로써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고 다만, 현직 관료와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을 면제받았으나, 종친과 외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는 고급 특수군에 편입되어 군역을 대신하였다.

26.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수레와 선박 이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② 노론 가문 출신으로 연행사를 따라 청에 다녀왔다.
- ③ 박규수, 오경석 등의 통상 개화론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 ⑤ 양반전 등에서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서울 노론 벽파 출신의 박지원은 연행사로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옹전 등의 소설을 써서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는 한전론(토지소유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는 허락치 않으며 수십년 후 매매와 상속을 허락)을 주장하였으며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문학적으로는 문학의 형식과 실질 양면을 규제하는 고문(古文)의 초시대적 전범성을 부인하고 변화·현실성·개성의 이념을 주창하다가 순정고문(醇正古文)으로 돌아가려는 문체반정을 추구하는 정조에게 견책을 받고, 자송문(自訟文)을 지어 바치기도 하였다.

청을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그의 북학 사상은 손자 박규수로 이어져 그도 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근대 문물에 눈을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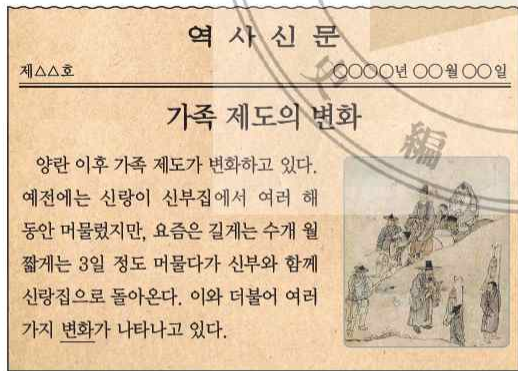
오경석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통역관으로 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서적을 가져와 서양 문물을 소개하였다. 한의 사였던 유흥기도 이러한 서적들을 접하면서 통상 개화를 주장하였다.

1869년 말 오경석·유흥기·박규수는 동지로 결합하여 1870년 초부터는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북측 양반 자제들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유길준, 서광범 등 교육시켜 개화파로 이어졌다.

정답: ④

* 북학파 인물 박지원(1737~1805)

27. 밑줄 그은 '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재산 상속에서 장자 우대의 원칙이 확산되었다.
- 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 ㄷ.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ㄹ.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록하게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조선 후기의 혼인.가족.상속 제도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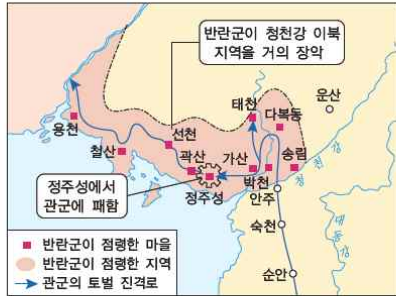
자녀의 족보 기재도 출생 순서대로 기재하였고 아들은 물론 딸의 자식(외손)도 기재하여 만성보(萬姓譜)적인 성격을 보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처음에는 딸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고 하는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28. 다음 사진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동학 사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 ② 신흥 상공업 세력이 성장하였다.
- ③ 세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 ④ 몰락 농민들이 광산으로 모여들었다.
- ⑤ 서북인의 관직 진출이 매우 제한되었다.

정답: ①

* 세도정치 하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1811)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 봉기였다(1811).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였다.

이는 경화 세도정권에 의해 서북지역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조선 초부터 서북 출신들은 고려의 유민으로 구분되어 등용되지 못했고 이후 천한 신분으로 여겨져 왔으며, 한양에서 치뤄지는 대과에서 시골 선비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청무역이 발달하여 만상, 유상 등의 대상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화 세도정권과 특권 상인에게 수탈당하였고, 금·은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평안도 지역의 광산 개발이 활발하였고 빈농·유민들이 잠재(潛採)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의 농민이 하나로 뭉쳐 탐관오리의 착취와 지방 차별에 반대한 농민 항쟁이었다.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 개혁신안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뒤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①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지방의 몰락한 양반인 최제우가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하여 창도하였다.

2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 나라 안 (가)을(를) 모두 허물고 유생들을 쫓아 버리도록 하였다. 감히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니, 사족들이 크게 놀라서 온 나라 안이 물 끓듯 하고 대궐 문간에 나가 울부짖는 자도 수만이나 되었다. …… 그러나 백성들의 춤추고 칭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 「근세조선정감」 -

- ① 지방 사림의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 ②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 ③ 모든 군현에 설치되어 중앙 집권화에 기여하였다.
- ④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 교육 기관이었다.
- ⑤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향촌 자치 기구였다.

정답: ①

* 서원에 대하여

16세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원도 향약과 함께 사림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었다. 서원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람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은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1543). 서원에서는 봄·가을로 향음 주례를 지냈고,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장려하여 전국 각처에 많은 서원이 세워졌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② 환곡제의 폐단을 시정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면민들이 공동 출자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③, ④ 조선은 유학을 공부하는 관학 교육 기관으로 서울에 국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다. 이는 최고 학부의 구실을 하였고,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앙의 4 학과 지방의 향교가 두었다.

향교는 중등 교육 기관으로,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부·목·군·현에 향교를 각각 하나씩 설립하였다

⑤ 조선 시대에 향촌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유향소였다.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 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30. 밑줄 그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귀국의 제주 동북쪽 100여 리 떨어진 곳에 섬이 있는데, 서양 이름으로는 해밀턴 섬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이 나라가 남하하여 홍콩을 침략할까봐 ㉡의 섬에 군사와 군함을 주둔시키고 그들이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귀국이 이 섬을 영국에 빌려준다면 도적을 안내하여 문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 북양대신 이홍장 -

- ① ㉠ - 조선으로부터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 ② ㉠ - 아관파천 후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을 획득하였다.
- ③ ㉠ - 조선책략에서 결속하여야 하는 나라로 지목되었다.
- ④ ㉡ - 어재연 부대가 미국군과 격전을 벌인 곳이다.
- ⑤ ㉡ -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으로 편입한 곳이다.

정답: ②

* 거문도 사건(1885~1887)

㉠ 러시아 ㉡ 거문도

조선은 갑신정변(1884.12) 이후 더욱 심해진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러시아도 영흥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여 군사 훈련을 담당한다는 비밀 협약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청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조·러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는 대한 해협에 위치한 섬으로 한·일 양국의 해상 통로는 물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요충지로도 손색이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해밀턴 항이라 부르며 영국기를 게양하고 포대를 구축하며 수뢰까지 설치하였다.

이에 조선은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청도 러시아와 일본이 이를 핑계로 조선에 파병할 것을 염려하여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는 영국군이 철수하더라도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영국군은 1887년에 거문도에서 물러났다.

① 조선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처음 적용받은 나라는 미국이다(조미수호통상조약:1882).

② 아관파천(1896) 후 울릉도 삼림채벌권을 획득한 나라는 러시아이다

③ '조선책략'에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으로 되어 있어 청은 조선과 미국과의 수교를 앞선하였다.

④ 신미양요(1871) 때에 어재연 등이 이끄는 부대는 광성보에서 미군을 막아 내었다

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1905)

3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조선의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
- ② 면직물을 생산하는 가내 수공업이 위축되었다.
- ③ 객주, 여각 등 국내 중간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다.
- ④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 ⑤ 청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정답: ⑤

* 개항기(1885~1894)의 경제상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9)으로 외국 상인에게도 서울에서의 점포 개설(한성개잔)과 내지 통상이 허용되었다. 이중 한성 개잔은 조선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도시인 한성의 상권을 청·일 상인이 잠식해 들어오는 결과를 낳아, 청이 누린 특권이 곧이어 최혜국대우 조항에 의거에 일본(1885년 한성 진출), 서양 국가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조선 상인의 영업권이 위협을 받았다. 시전상인·공인 등 기존의 상인층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외국 상인들은 서울과 개항장을 거점으로 내지 시장에 침투하였다. 이들은 한국인 객주와 여각을 상대하기보다는 직접 조선인 거간을 고용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시골의 마을까지 들어와 상품을 팔고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였다(객주·여각 중간상인 타격).

개항 초기 조선의 무역은 일본 상인이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나 임오군란 이후 청 상인의 활발한 진출로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청·일 전쟁 직전에는 조선에 대한 양국의 수출 무역 규모가 거의 비슷해지고 조선의 무역수지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조선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하고 쌀, 콩, 쇠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면포 수공업자는 물론 가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도 큰 타격을 받았다.

④ 조선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하고 쌀, 콩, 쇠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면포 수공업자는 물론 가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도 큰 타격을 받았다.

32. 밑줄 그은 ㉠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3점]

반민들의 형세가 날로 확대되어 성읍이 연이어 함락되어도 백성들은 도리어 기뻐하는 기색을 띠고 오직 관군이 패한 것만 말하였다. 왕과 왕비가 크게 노하여, “반민들을 빨리 평정하지 못하면 불순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갈 염려가 있다. 전보를 보내 ㉠청국에 원병을 청하라.” 하였다. - 「매천야록」 -

- 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 ②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 ③ 구식 군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 ④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 ⑤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정답: ④

* 동학농민운동과 청에 원군 요청

<고부봉기>: 1894.1.10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문제)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

핵사 파견

<1차 봉기>: 1894.4, 반봉건적,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재봉기(백산 봉기) → 황토현(정읍),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관군 격퇴 → 전주성 점령(4.27)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5. 5)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5. 9)
- 전주 화약 체결(5.8):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 → 일본의 궁성 침입(6.21)

< 집강소 시기 >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9,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혁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북접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북접 손병희 부대와 합류)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1월)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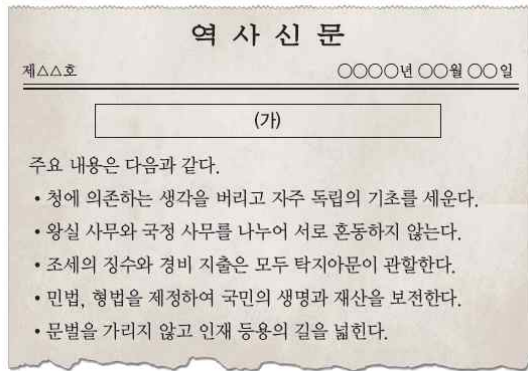
② 병인양요(1866)

③ 임오군란(1882)

⑤ 을미개혁의 단발령(1895.12)

33.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고종, 홍범 14조를 선포하다.
- ② 관민 공동회, 헌의 6조를 바치다.
- ③ 농민군, 폐정 개혁안을 제출하다.
- ④ 광무 황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다.
- ⑤ 갑진 개화파, 개혁정강 14조를 내세우다.

정답: ①

* 홍범 14조와 2차 갑오개혁(1894.12~1895.7)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였다. 일본은 흥선 대원군을 은퇴시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이에 따라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여 제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내정 개혁 및 자주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 서고문을 바치는 한편,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차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8아문->7부), 지방제도 개편(8도 -> 23부, 337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 배제, 재판소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한성 사범 학교 관제, 소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 ②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1898.10)
- ③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제출(1894.6)
- ④ 대한국 국제 반포(1899.8)
- ⑤ 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 (1884.12)

34. (가)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1점]

○○박물관 화폐역사실

조선 후기 화폐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조되어 조선 말까지 사용된 화폐로, 실록 등 여러 기록에서 동전이라 하였으며 엽전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 상품 경제가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답: ③

* 상평통보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서 금속 화폐, 즉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정부도 화폐의 유통에 힘써 인조 때 동전을 주조 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에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숙종 때에는 상평통보(1678)가 주조되어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

① 건원중보(996): 고려 성종 때 주조된 최초의 화폐

② 경성 전환국 발행 1환 주화(1888): 최초 신식 주화

③ 상평통보(1678)

④ 조선통보(1423): 고려 말에 등장하여 유통되던 저화의 가치가 날로 떨어져서 화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자 세종 때 (1423) 그 보완책으로 주조되었다. 저화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사섬서에서 관장하여 유통시키려 하였으나 부진하였다. 농민은 화폐로 쌀과 무명을 사용하였다.

⑤ 대동이전(1882):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은화. 대동일전, 대동이전, 대동삼전이 있다. 대동전은 대동법 하에서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이상설 선생 연보

1870년 충북 진천 출생

1906년 북간도 용정에 ㉠학교 설립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 파견

1909년 이승희 등과 밀산부에 ㉢기지 건설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 단체 조직

1914년 이동녕 등과 함께 ㉤정부 수립

1917년 니콜리스크에서 서거





- ① ㉠ -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② ㉡ - 고종의 밀명으로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되었다.
- ③ ㉢ - 독립 운동 기지인 한흥동을 건설하였다.
- ④ ㉣ - 신한촌에서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 ⑤ ㉤ -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웠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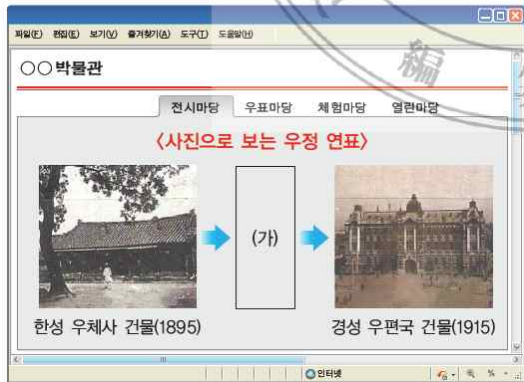
* 헤이그특사 사건과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의 주역 이상설

이상설(1870~1917):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요구 반대상소를 올려 관철시켰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협의, 조약의 무효를 상소하고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일으켰으며, 헤이그 특사 사건(1907)의 일원(이준, 이위종, 이상설)으로 활약함이 유명하다.

국권 상실 이후에는 만주.연해주 접경지역인 밀산부 한흥동에 독립기지를 건설하였고, 이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13도의군, 성명회 조직에 참여하였고, 신한촌(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포단체 권업회(1911)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정(軍政) 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1914)를 이끌었다

① 북간도에 소재한 명동학교는 김약연이 설립하였다(1908).

36.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갑신정변으로 우편 업무가 중단되었다.
- ② 고종의 명령으로 우정총국이 개설되었다.
- ③ 한성순보에 우편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 ④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여 외국과 우편물을 교환하였다.
- ⑤ 보빙사 일행이 미국 우정성과 뉴욕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정답: ④

* 근대 말(1895~1915) 우편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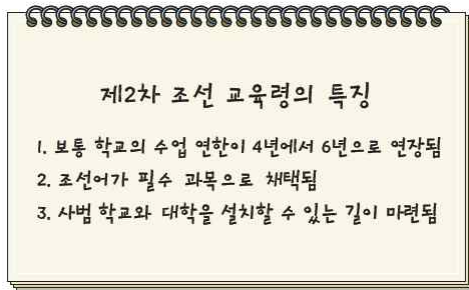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우편 제도는 우정총국이 설치되었다가(1884.12) 갑신정변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고 1895년 을미개혁 때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만국우편 연합(1900)에 가입하여 외국과 우편을 주고받게 되었다.

③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라 조선 주재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보빙 사절단을 파견하였다(1883). 보빙사 일행은 40여일의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시찰하였다.

⑤ 우리 나라 최초의 신문은 1883년 박문국에서 간행한 한성 순보였다. 한성순보는 국내 소식과 함께 서양의 신문을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갑신정변(1884.12)의 실패로 폐간되었다.

37. 다음 교육령이 시행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공출로 낫그릇을 학교로 가져가는 학생
- ② 국채 보상 운동의 모금에 참여하는 교사
- ③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라며 질책하는 교사
- ④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하는 학생
- ⑤ 학교에서 목검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여학생

정답: ④

* 2차 조선 교육령(1922~1938) 시기의 모습

• 제 1차 조선 교육령(1911): 우민화 교육, 보통·실업·전문학교 구분, 보통학교 4년(일본 6년)

* 서당 규칙(1918): 서당 교육 탄압

• 제 2차 조선 교육령(1922): 유화정책, 보통 교육 4년 -> 6년, 조선어를 필수과목, 고등 교육(대학) 가능 -> 경성제국대학 설립 (1924), but 식민지 차별 교육

• 제 3차 조선 교육령(1938): 황국신민화교육(내선일체), 보통학교->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중학교, 학교명, 교육과정을 일본 본국 학교와 통일, 조선어 선택, 한국사 -> 일본사

• 천황 칙령에 의한 개정(1941): 소학교 -> 국민학교,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

• 제 4차 조선 교육령(1943): 한국어 과목 폐지, 전시교육체제 강화

① 금속 공출(1942)

② 국채보상운동(1907)

③ 창씨 개명(1939)

④ 근우회(1927~1931)

⑤ 4차 조선교육령(1943): 교육기관이 군사 훈련소화 하는 등 교육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마비되었다

38.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②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③ 대성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④ 만민 공동회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였다.
- ⑤ 복벽주의에 기반을 둔 독립 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정답: ③

* 서간도를 개척한 신민회

•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민회(1907~1911)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 통감부의 탄압으로 정치 활동이 어려워지자 비밀 결사인 신민회가 결성되었다(1907). 각계각층이 참여하면서 800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성장한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에 바탕을 둔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세워 문화 활동과 민족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①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② 입헌 정치 체제의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 연구회(1905~1906)를 계승한 대한자강회(1906~1907)는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간행하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④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독립 협회(1896~1898)는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상소문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1912년 임병찬 등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여 일본을 몰아내고 대한 제국을 복원하려는 복벽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39. (가)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② 레닌이 세계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할 것을 선언하였다.
- ③ 만주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④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이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⑤ 안창호의 주도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축성회가 창립되었다.

정답: ⑤

* 3.1 운동(1919)의 배경

1910년대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민족 교육 운동과 문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사립학교, 서당, 야학을 통해 학생과 청년들의 반일 의식이 고취되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은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국의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도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세계적인 민족자결의 분위기에 고무되어 1919년 상하이에서 조직된 신한 청년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국내외의 민족 운동가들도 독립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시위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2·8 독립 선언이 선포되었다.

또한 만주에서도 독립 운동가 39명이 서명한 대한 독립 선언서(무오독립선언: 1918.11)가 발표되어 일제에 대한 육탄 혈전을 결의하여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⑤ 중국의 제1차 국·공 합작(1924)은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독립운동 진영의 단결을 적극 호소한 안창호 등의 노력으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축성회가 창립되었다(1926)고 이는 국내의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이어져 신간회(1927)가 탄생되었다.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보고서

1. 사적지명: 김기권 문방구점 터
2. 현재 상태: 문방구점 건물은 없어지고 금남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3. 역사적 사실: 1929년 6~7월 경 광주 지역 각 학교에서 조직된 독서회를 총괄하는 중앙 본부가 이곳에서 결성되었다. 독서회 중앙 본부는 11월 3일 시위로 본격화된 **(가)** 이(가)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① 순종의 장례 일을 맞아 가두 시위를 벌였다.
- ② 일본어 상용과 신사 참배 강요에 저항하였다.
- ③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④ 일제의 무단 통치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답: ③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

6·10 만세 운동(1926) 이후 학생 운동은 일본인 교원 배척, 한국 역사 및 한국어 교육 허용, 학생회의 자치 허용 등을 내걸고 전개되었다. 특히 각급 학교에 조직된 독서회는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양시키고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1929년 11월,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일제의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는 인근의 나주와 목포로 확산되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에 알려지자 신

간회 등 민족 운동 단체에서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서울에서는 학생과 민족의 총결기를 요구하는 격문이 나돌았다. 이에 일제는 조기 방학을 실시하여 고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이듬해 1월에 서울에서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결기를 시작하였다.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조선 독립 만세’를 내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탄압에 학생들은 가두 시위나 동맹 휴학으로 맞섰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였다.

① 1926년 사회주의자와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6월 10일, 일제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학생들은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대규모의 군중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6.10만세운동).

② 일본어 상용과 신사참배는 일제의 총동원 체제(1938) 이후의 모습이다.

④ 일제는 3·1 운동(1919)을 계기로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었다.

⑤ 비밀결사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1911)으로 큰 타격을 입고 해체되었다.

41. 다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농촌 진흥 개선에 뜻을 가진 자는 적절하고 철저하게 지도 계발에 나서야 한다.
-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의 연설, 1932년 -
- 농가 경제정책
- 각 농가의 경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책의 수립을 중심으로 하고, 정신 자세의 중요성도 충분히 천명할 것
- 지방의 실정에 따라 식량의 충실, 금전 경제의 수지 균형, 부채 근절을 목표로 하여 연차 계획을 수립할 것
- 「농가 경제 개생 계획 수립에 관한 방침」, 1933년 -

- ① 양곡의 무제한 유통이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였다.
- ③ 식량 배급을 실시하고 국방 현금을 강요하였다.
- ④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여 소작농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 ⑤ 대공황으로 더욱 궁핍해진 농민의 저항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정답: ⑤

* 1930년대의 농촌진흥운동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여 1932년~1940년 사이 동안 전개하였던 관제농민운동.

총독부는 당시 세계 경제 대공황과 기존의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으로 농촌경제의 몰락에 따른 소작농 및 농민들의 사회 불안 억제와 소작농·농민들의 불만 및 각종 소작쟁의 운동 활성화를 통제하는 한편, 본격적인 중국대륙 침략전쟁을 앞두고 '황국신민화'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개하였던 일종의 사회 교화운동이었다.

조선 농지령(1934): 1920년대 이후 격화되는 소작쟁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코자 기존의 소작령을 대폭 수정·보완한 법령.

명칭만 거창할 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만 국한시킨 그 적용범위로 볼 때는 이전의 조선소작령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군·도에 소작위원회를 두고 마름

의 악폐를 제거하기 위해 지주가 마름과 같은 소작지 관리인을 둘 경우 지방관서에서 그 인물의 적부를 소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게 한 것, 소작권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작물의 성격에 따라 3년 내지 7년 이상의 기한을 규정한 것 등은 소작쟁의의 주요 원인을 근절시키려 했던 목적에 합당한 조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령의 실제 집행에서는 여전히 지주를 옹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므로, 이 법령의 당초 제정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소작쟁의는 그 뒤로도 수없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농민·소작농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는 커녕, 전시동원 협력체제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 포석 정책에 불과한 관제운동으로 1940년 12월, '국민총력운동'으로 대체됨에 따라 농촌진흥운동은 자연스럽게 끝을 내게 된다.

①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인 조·일 무역규칙(1876.8)에 의해 양곡의 무제한 유통이 허용되었다.

② 일본 농민을 이주시킨 목적으로 창립된 동양 척식 주식회사(1908)는 1913년부터 막대한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1920년에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았다.

③ 일제는 1940년대 들어서 전쟁이 확산되자 식량배급을 실시하고 지원병과 국방현금을 강요하였다.

④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으로 소작농들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42. 그래프의 (가) 시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일제가 미쓰야 협정을 체결한 이유를 알아본다.
- ② 일제가 관세를 철폐한 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 ③ 토지 조사 사업이 농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 ④ 간토 대지진 직후 재일 한국인의 피해 상황을 살펴본다.
- ⑤ 전쟁 확대에 따른 일제의 노동력 부족 대책을 조사한다.

정답: ⑤

* 1940년대 일본으로의 이주 증가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한국인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전투 병력이 모자라자 1938년 이른바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고,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약 24만 명의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1939년 노무 동원 계획을 수립하여 강제 동원을 실시하였다. 강제 동원된 노무자들은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다. 이들은 북쪽의 공업 지대뿐만 아니라 일본, 사할린, 동남아시아의 군수 공장이나 광산, 비행장, 해군 기지 건설 공사장 등에 동원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 징용된 노무자 수는 대략 70여 만 명을 헤아렸다.

일제는 1944년부터 이른바 ‘여자정신근로령’을 발표하여 젊은 여성들을 한국, 일본 등의 군수 공장에서 혹사시켰다. 또한 많은 여성들을 동남아시아, 중국 전선에 보내 일본군의 성 노리개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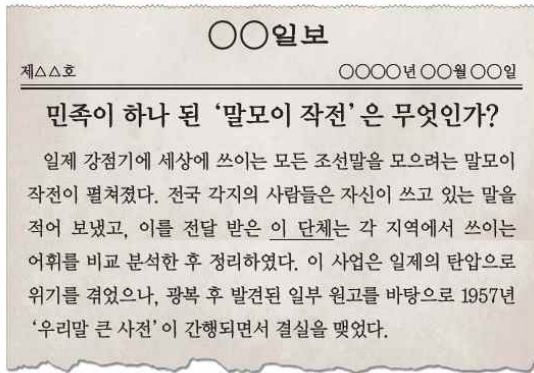
① 조선 총독부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한 미쓰야 협정(1925, 만주 독립군에 대한 단속·인도 규정)으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었다.

②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③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2~1918)으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간도나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는 생계를 위한 자발적 이주로, 문제의 강제적 이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관동대지진과 학살(1923):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수습과정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유연비어가 조장되어 조선인 대량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때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의 숫자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000명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43.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관지로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 ② 지식영, 주시경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다.
- ③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 운동에 참여하였다.
- ④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족 의식을 높였다.
- ⑤ 신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에 앞장섰다.

정답: ③

* 한글연구 단체 '조선어학회'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가 국·한문 혼용으로 제도화되고, 학교 교육에서 국·한문제 교과서가 사용되면서 언문 일치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유길준의 서유견문도 국·한문 혼용체 보급에 기여하였다. 1907년에는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 지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 하였다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을 제정하여 우리말 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19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어 한글 강습 교재를 만들어 문맹 퇴치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더욱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이 전개되었다.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1933).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해방 이후인 1957년에 간행되었다.

① 실증 사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도, 손진태 등은 진단 학회(1934)를 조직하고 진단 학보를 발간하여 한국사 연구에 힘썼다.

④ 천도교는 1922년 3월 1일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여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벽사를 설립하여 『개벽』, 『부인』, 『어린이』,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⑤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상재 등은 1922년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적인 호응 아래 1923년 3월에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신지식과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민립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일제의 민립 방해로 인한 모금 저조와, 일부 한국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1923년 경성 제국 대학 관제를 발표하여 무산되었다.

44.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우리가 우리 몸을 반쪽 낼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이야 어찌 차마
더 보겠나이까.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남북 지도자 회담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월을 연서로 올리는 것입니다.

- 김구·김규식이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 -



1945년 8월	(가)	광복
1945년 12월	(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6년 3월	(다)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7년 5월	(라)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1947년 11월	(마)	국제 연합 (UN) 총회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 제의(1948.2)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1947.10)되고 유엔이 남한 단독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우자(1948.2),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은 정부 수립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 아래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라는 정부 형태의 권력 기구가 출범한 상황이었다.

한국 독립당의 김구와 민족 자주 연맹의 김규식 등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함께 모여 통일 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1948.2.4.).

평양에서 열린 전조선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5·10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통일 민주 국가 수립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열린 전조선 제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는 독재 정권 배격, 총선거 실시, 전쟁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김구·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김두봉과 별도 회담을 가져 남한과 북한의 단독 국가 수립을 모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두봉은 남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북한 측의 의도대로 진행된 4자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1948. 4. 19.~4. 30.).

45. 밑줄 그은 ㉠과 관련된 사실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미국의 원조 규모가 줄어들자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재원과 시장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5·16 군사 정변 이후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서 모으려고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보 기>

- ㄱ.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 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 ㄷ.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 ㄹ. 국제 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을 지원 받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 1960년대 경제개발의 재원 마련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이루어진 전투 사단의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한편,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의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서독은 광부와 간호사가 부족하였기에 당시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연간 5,000만 달러로 한때 한국 GNP의 2%에 이르렀고 19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종자돈' 역할을 했다.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현에 따른 자유무역 추세와 맞추어 싱가포르 등 15개국과는 자유 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2007)·인도(2009)와는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유럽 연합(EU)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과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에 경제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의 긴급 금융 지원받았다.

46. 다음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의복은 우선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를 음력 계해 정월 1일부터 조선인 산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하여 착용할 일
 - 음식물에 대하여는 소금, 설탕, 과일, 청량 음료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인 물산을 사용할 일
 - 일용품은 조선인 제품으로 대용 가능한 것은 이를 사용할 일
- 「산업계」 -

- ①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 ②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 ③ 사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④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⑤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정답: ④

*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1919년에 일제가 192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민족 자본은 큰 위기에 부딪혔다. 이에 1920년부터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이듬해 서울로 확산되었고, 1923년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하였고, 청년 학생 중심의 자작회가 중심되어 ‘조선 사람 조선 사람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물산 장려 운동과 함께 전개된 청년 단체들의 금주 단연 운동, 자작자급 운동, 소비 절약 운동도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민족 자본은 물산 장려 운동으로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토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 영세민의 생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켰다. 또한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① 형평운동(1920년대)

② 노동쟁의(1920년대~1930년대 전반)

⑤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1907)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47. (가), (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평화 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시키지 말라.”고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랐다.

(나) YH무역 노동자들은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 당하였다.

- ① (가) - 유신 체제의 노동 운동 탄압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 ② (가) - 노동 문제에 대한 대학생과 지식인의 관심을 높였다.
- ③ (나) -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④ (나) - 6월 민주 항쟁 직후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하였다.
- ⑤ (가), (나) -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일으켰다.

정답: ②

* (가)전태일 분신 사건과 (나)YH무역 사건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에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1970년 11월에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라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운동, 노동 조합 설립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 3 권을 크게 제한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급기야 1979년에 야당(신민당) 당사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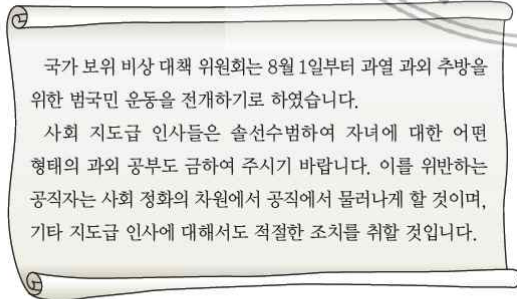
1980년대 전두환 정권기에도 노동 운동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화의 진전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등장하고, 노동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지만, 노동자는 노동 조합조차 제대로 조직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 조합이 새로이 결성되었다. 1991년, 정부는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노동 규칙을 따르고자 하였고, 1995년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양대 축으로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주요 노동 문제로 대두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 조정애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① 유신 체제는 1972~1979년의 모습이다.

48. 다음 방안이 추진된 시기의 교육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고교 평준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 ② 중학교 의무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 ③ 교육의 기본 지표로 국민 교육 현장이 공포되었다.
- ④ 중·고등 학생의 머리 모양과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 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정답: ④

* 전두환 정권 하의 교육 정책(1980년대)

• 5·18 민주화 운동(1980.5.27)을 진압한 뒤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5.31.)를 조직하여 국가 주요 조직을 장악해 나갔다. 또한 비판적인 언론인, 학자 등을 해직시키고 언론사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삼청교육대 운영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였으나 과외 전면 금지(7.31) 등의 획기적 조치도 취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의 사퇴 직후 1980년 8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10월, 대통령 선거인단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었다. 새 헌법에 의해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도 해외 여행 자유

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1982), 중·고생 두발·교복 자율화(1983), 프로 야구단 창단 등의 유휘 정책을 폈다.

• 광복 이후 미국식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6·3·3 학제(1949.12.31 제정되어 1950년부터 실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교육 이념으로는 홍익인간이 채택되었으며,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관주도의 문제가 있지만 국민교육헌장(1968.12)을 제정하여 우리 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는 민주 시민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광복 이후 대학을 비롯한 고등 교육 기관이 설립되고 중등 교육 기관도 크게 늘어났다. 이미 제헌 헌법에서부터 의무교육은 추진되어 현재에는 중학교까지 사실상 의무교육이 실시(1985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전면 실시)되어 교육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문맹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6·25 전쟁 중에도 피난지의 천막 학교 등에서 수업이 진행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높은 교육열은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일류 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과외 열풍과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교육의 평등화를 위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1969)가 도입되고,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현재는 일부 지역은 폐지)이 실시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 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49. 다음과 관련된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음력 7월 보름 무렵 밀양에서는 백중 놀이가 열린다. 이것은 농사일을 거의 끝낸 해방감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융합된 민속 놀이다. 밀양의 백중 놀이는 1980년에 중요 무형 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었다.

- ①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찾아 돌보았다.
- ② 액을 물리치기 위하여 팔죽을 쑤어 먹었다.
- ③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널뛰기를 하였다.
- ④ 건강을 기원하며 부럼을 깨물고 오곡밥을 지어먹었다.
- ⑤ 머슴에게 일손을 쉬게 하고 돈을 주어 하루를 즐기도록 하였다.

정답: ⑤

* 세시풍속 백중(百中): 음력 7월 15일

백중(百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무렵에 과실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백가지 곡식의 씨앗(種子)을 갖추어 놓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이다.

이 때에는 각 가정에서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천신을 한 다음에 먹는 천신 차례를 지냈으며, 옛날에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다. 농가에서는 이날이 되면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주었다. 머슴들은 그 돈으로 장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샅기에 '백중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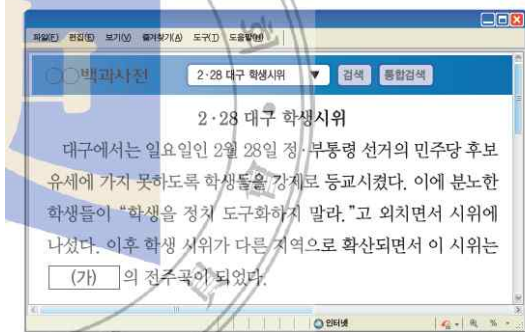
① 한식(寒食): 춘추시대 진문공과 개자추의 고사에서 유래와 관련 있으며 보통 성묘(省墓)를 한다.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날. 양력으로 4월 5, 6일 경이다.

② 동지(冬至):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다.

③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 삼한 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④ 정월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일명 상원(上元). 한해의 풍요와 건강의 안녕을 기원한다.

50. (가)와 관련된 선언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 ② 긴급 조치를 철폐하고,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라.
- ③ 부정 공개 투표의 창안 집단을 법으로 처벌하고, 정부는 마산 사건을 모두 책임지라.
- ④ 집권자는 1인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 민주의 헌정 수호 대열에 참여하라.
- ⑤ 우리 시민은 민주주의와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일어섰다.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철폐하라.

정답: ③

* 2.28 대구 학생 시위와 4.19 혁명(1960)

이승만 정부의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강행을 통한 장기 집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 정부와 자유당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갑자기 사망한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특히 1960년 2월 28일 당국이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조치한 데 반발하여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선거 당일(3.15) 마산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켰다.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였다.

4월 11일,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자 마산에서 2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는 부정 선거 규탄에서 정권 타도 투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①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② 3.1 구국선언(1976): 일부 재야 정치인들과 카톨릭 신부·기독교 목사·대학 교수 등이 발표한 유신체제하 최대의 반정부선언사건.

④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와 민주 공화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과 학생, 재야 세력을 억누르고 국회에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69).

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비상계엄 해제와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석방, 민주주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신군부는 공수 부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시가전을 벌였다.